

분뇨처리 우수목장을 찾아서

- 야곱목장 -

목장주 최옥연(45) 정재숙(40)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팽동읍 평궁리 310-152
 전 화 031-691-2488
 - 총두수 111두 - 착유우 42두
 - 건유·분만우 9두
 - 유지방 4.1 - 체세포 8~10만
 - 세균수 5,000 이하 - 우사면적 870평



목 장취재를 하고 낙농육우를 구독하는 수만의 낙농가와 축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반신반의하면서 취재길에 나섰다.

내가 취재를 하기 위해 도착한 평택의 야곱목장은 도시근교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도 수질에 민감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분뇨처리는 많은 낙농가들이 목장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최근 분뇨처리 법안이 더욱 강화되어 낙농가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대규모 목장에 활용

되는 방법으로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 목장을 소개하여 분뇨처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낙농가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취재를 하게 되었다.

분뇨처리 방법에는 후리스톨우사의 스크레퍼에 의한 액비저장방법과 톱밥발효처리 방법 등이 있다. 야곱목장은 스크레퍼에 의한 액비저장방법으로 1200톤 용량의 오수탱크에 분뇨를 저장하여, 논과 조사료 경작지에 발효된 분뇨를 살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먼저 목장주인 최옥연씨와의 인터뷰내용을 바탕으로 낙농가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순으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목장주인 최옥연씨는 2대째 낙농을 생업으로 하는 분으로 고향인 평택을 떠나 몇 년간 지내다 고향인 이곳에서 '83년부터 본격적으로 낙농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침 도착한 때에 오는 28일에 있을 품평회에 출품될 소들의 사진촬영이 있어 종축개발협회의 직원들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심 취재하기가 죄송할 정도로 준비에 열성을 다하고 있었다.

그 틈을 타서 목장 바로옆에 있는 오수탱크시설을 둘러보고, 목장내의 청결한 운동장을 사진기에 열심히 담았다. 몇 분후 그와 낙농일선의 한사람으로서 간

단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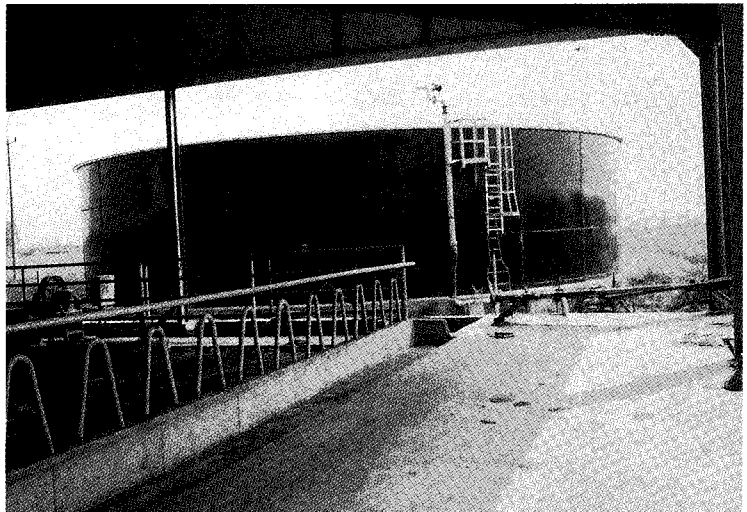
낙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축개량

그가 낙농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고 노력하는 것은 종축개량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훌륭한 유량을 가진 개체를 개량함으로써 유량과 유질의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두당 유량은 7800kg이고 그의 목표는 12000kg이라 말하며 자신감을 보이는 그의 모습에 능률한 낙농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젖소의 개량을 위해서는 개량의 자원을 찾기위하여 능력검정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되므로 낙농가 자신의 참여와 기록의 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조직간의 협동과 연관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때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된 우수한 젖소가 생산될 것이다.” 라고 최옥연 목장주는 말한다.

축산분뇨 처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그가 축산분뇨 처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첫째, 도시근교에 있어 수질오염 문제와 분뇨의 악취 때문에 잦은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 둘째, 분뇨를 발효하여 일년에 한번 겨울에 뿌려줌으로써 토양의 질과 농작물의 영양에 커다란 효과를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현재 두 개의 운동장중 한 곳에만 설치하고 있으나 향후 나머지 한곳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크래퍼를 일정하게 작동하기 위해 설치된 타이머는 세시간에 한번 작동하여 분뇨를 끌어 오수탱크와 운동장 사이의 탱크에 모아지며, 약 50일이 지나 어느정도 발효가 되면 악취방지를 위해 지하 파이프를 통해서 오수탱크에 옮겨지게 된다.

오수탱크에 모아진 분뇨는 겨울에 논과 조사료경작지에 살포하게 되며 야곱목장의 분뇨는 100% 이 두곳에 살포된다.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퇴비화로 극복한 좋은 사례라 생각되나 초기 투자비용만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되어 비용상 설치가 그리 쉽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액비저장방법의 장점

그가 말하는 스크래퍼를 활용한 액비저장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뇨가 발효되면서 분뇨 특유의 악취를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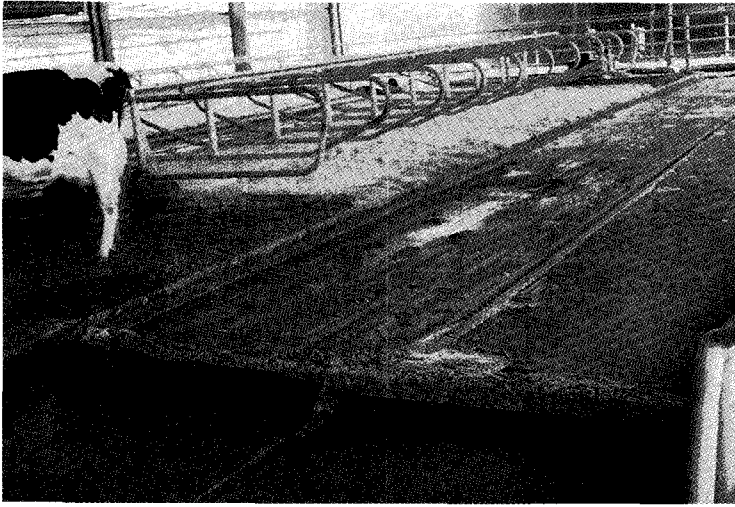
둘째, 교반장치를 통해 탱크내부의 분뇨를 위아래로 섞어 줌으로써 분뇨의 발효가 골고루 되어 퇴비로서의 사용가치를 높여 준다는 것이다.

셋째, 스크래퍼의 작동을 통해서 항상 깨끗한 운동장을 유지해줌으로써 젖소의 스트레스 및 질병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축산 관련기관에 바라는 점

책상에서 나오는 축산정책이야말로 낙농가들의 애로를 가중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본다.

무엇보다 일선기관에 바라는 점은 낙농가와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며 우리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몇 개의 목장에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거나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



막대한 투자비용을 감수해야 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 최옥연 목장주는 말한다.

취재를 끝마친 뒤 파아란 가을 하늘을 보았다. 시원한 가을 바람에 뺨을 스치며 지나간다.

그러나 취재를 마친뒤의 내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위정자들의 정책에 농민들은 점점 기댈 곳을 잃어가는 것 같아 가슴이 저려 온다. 좀 더 농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돌아오는 길을 재촉했다.

〈취재 : 한지태〉

안한 정책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축산분뇨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

라 정부보조를 통한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어 진 후에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액비저장방법을 채택하면서

알리는 말씀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육우농가 여러분의 단체입니다. 「월간 낙농육우」 또한 회원 여러분의 월간지로서 항상 회원여러분과 동고동락 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다음의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투고를 환영합니다 ♥

「월간낙농육우」에서는 언제나 회원여러분의 생생한 삶의 현장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마시고 펜을 드십시오. 우리는 소를 키우는 농민이지 소설가나 시인이 아닙니다.

아무런 격식도 필요없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체험담, 미담, 제언, 기술정보, 수필, 시, 콩트 등을 제한없이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원고에 대해서는 성심껏 게재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정의 원고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내주실 때에는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축산회관4층)
한국낙농육우협회 홍보실